

제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5. 2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5월 26일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최 훈 위 원

심 영 위 원

김 근 익 위 원 대행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1년도 제9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0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1년도 제9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0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78호 『나이스평가정보(주) 외 30개사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79호 『지속가능발전소(주)에 대한 혁
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80호 『펀드블록글
로벌(주) 및 우리자산신탁(주) 등 4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안』, 제181호 『(주)카카오페이에 대한 혁신금융서
비스 심사안』, 제182호 『(주)케이티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
정내용 취소 심사안』, 제183호 『(주)대구은행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184호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심사안』, 제185
호 『페이민트(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
안』, 제186호 『농협손해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 심사안』, 제187호 『코나아이(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1년도 제4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위원) 논의의 편의와 기록을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논의 및 제기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음. 첫 번째 「나이스평가정보(주) 외 30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동의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동의해 준 것을 감사해서 그때 의결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펀드블록글로벌(주)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보고된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음.

○ (보고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모형으로 네 번째 나가는 것임. 4개 중에 카사코리아라는 회사는 이미 영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11월에 상장해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5~6개월 정도 되었는데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가격도 처음 상장했을 때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이 4개까지 승인해 주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래서 이번 펀드블록글로벌(주)까지 똑같은 모형으로 승인하고 이런 방침을 핀테크 업계에 알려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업체는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음. 그리고 핀테크협의회 측에는

이런 방침이 오늘 확정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전달해 두었음.

- (위원) 지속가능발전소(주) 신용조회업은 사실상의 특례로 지금 보니까 인가행위와 거의 같은 것인데, 이것을 2년 연장해 주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2년 연장을 해 주는 것임.
- (위원) 그리고 신용조회업 인가요건에 맞는 곳의 외자유치를 통해서 자본요건 같은 것을 맞추고 난 다음에 정식인가로 전환하는 것인지?
- (보고자) 지금 기업 신용조회업으로 허가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본금 요건을 맞추고 나서 하반기 중에 허가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음.
- (위원) 그렇게 되면 특례는 없어지고 인가로 넘어 가는 것인지?
- (보고자) 허가가 나게 되면 그렇게 됨.
- (위원) 그렇다면 외자유치 같은 것들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지연되어 자꾸 연장을 해 주면 인허가행위까지 같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임. 그래서 그런 허가 절차를 통해서 자본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자본유치상황을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임.

○ (위원) 혹시 더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있는지?

○ (보고자) 별도로 더 말씀 드릴 사항은 없음.

○ (위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위원님들께 결론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떤 논의가 되었고 또 어떤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렸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88호 『(주)하나은행 등 4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하나은행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청한 하나지주계열 4개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예비허가하는 내용

○ (위원) 그러면 총 28개사에 추가로 4개사가 되는지?

○ (보고자) 지금 28개사는 본허가 처리가 다 끝났고 이번 안건은 예비허가로 절차상 본허가가 남아 있음. 카카오페이가 지난번에 예비허가가 나갔음. 그리고 31개사는 신규신청이 되어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신청

을 받을 예정임.

- (위원) 그러면 총 33개사에 신규가 31개사이면 총 64개사가 되어 포화상태 같은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지?
- (보고자) 일단 많은 회사들이 수익성 자체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포화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음. 이것을 토대로 수익성을 추구하겠다는 핀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잘 보고 있음.
- (위원)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큼 고객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므로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고 진입 자유도 좋은데 고객 보호도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주시기 바람. 64개나 되는 회사가 들어오면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무엇을 예단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님.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89호 『한화라이프에셋(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대리점 한화라이프에셋(주)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0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제도 중심의 감독을 위해
신설·강화 규제 위반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는 내용

○ (위원) 간담회 때는 비조치의견서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과 이것은 어떤 관계인지? 공식화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다소 시차는 있었지만 공식화하는 것임.

○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문으로 보내주는 것인지?

○ (보고자) 공표하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임.

○ (위원) 공표하면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통상의 경우에는 개별 회신하는 것이 원칙임. 이번
건은 과태료 제재도 같이 면제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그 권
한은 금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의결형식으로 효력을 발하
게 되는 것임. 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표는 하고 필요하다면 개별공문을 보낼 수도 있음. 전달 방법의 문제임. 효력은 이미 의결로 되는 것임.

- (위원) 아마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것이면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불이익한 것은 아니니까 공표만 해도 법상 문제는 없을 것 같음. 두 달 만에 평가는 이르긴 하지만, 현장 정착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중간에 계속해서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도 했고 다음 달 초에도 다시 할 예정임. 현재까지 시장상황을 보면 초기에 다소 혼란스럽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Q&A가 많이 들어와서 답도 많이 나갔음.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고 또한 지침(guideline) 내졌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시장이 같이 참여해서 지침(guideline)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를 갖고 있는 것 같음.
- (위원) 우리가 협회, 금감원과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어서 서비스 해 주고 Q&A를 계속 올려주기로 했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계속 진행하고 있음.
- (위원) 질문이 조금 줄어들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테스크포스(task force)는 시한이 있는지?
- (보고자) 일단 제도기간 중에는 계속 운영할 예정임.
- (위원) 알겠음.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각 금융회사도 1호가 될 수 없다고, 첫 번째로 불명예를 쓰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 것 같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금융회사는 회사대로 노력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지원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9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작년 12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후속조치 및 IPO 공모주 중복청약 방지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이것이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6월20일에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왜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인지, 한 시행령에 올라가는 것이 맞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인지?
- (보고자) 공모주 일반 배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작년 말에 발표했고, 중복청약을 거르기 위해서는 전산을 구축해야 됨. 증권사 전산 연결을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전산작업이 한 6월20일경 완료된다고 함. 참고로 최근에 IPO 대형 건들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신규계좌를 개설해 주느라 밤샘작업을 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것을 하루 빨리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실질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6월20일로 설정한 것임. 해외법인 신용공여 건은 법에 의해서 시행일이 6월30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6월30일로 한 것임.
- (보고자) 6월12일에 차관회의, 6월 15일에 국무회의 올리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음.

- (위원) 알겠음. 다른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통과되자마자 5일 만에 시행하면 미리 안 알려줘서 혼선이 됐다는 말이 나올까봐 그러함. 대신 업계에 일정을 이야기해서 준비하라고 해 주시기 바람. 갑자기 발표하고 5일 만에 하면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음.
- (보고자) 지금까지 다 준비를 해왔던 사항이고 증권사들과 다 협의하고 있는 사항임. 다시 한 번 전달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전 심의

- ☐ 보고안전 제17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 보고안전 제18호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

대하는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을 늘린다고 했음. 그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대출은 늘어나겠지만 증가율을 줄인다고 했을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저신용자대출을 늘린다면 결국은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 기존에 있는 은행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저축은행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업체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중금리 인하를 7월부터 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줄어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금리대출을 흡수해 주고 연쇄이동이 되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어쨌든 인터넷전문은행이 저신용자대출을 늘린다고 할 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거나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일단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공급이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본 것임.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수요는 있는데 그것이 100% 만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적정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임. 인터넷전문은행이 적정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공급 한다면 과소공급 되고 있는 부분들에 좀 더 공급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는 다른 시장을 뺏어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함.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함. 다만, 금리가 연쇄적으로 낮아지고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높고 우량한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이 되고 그 밑에는 점점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일정 부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함. 저신용층에서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분과 관련하여 정책금융 쪽에서 받쳐주거나 다른 정책적인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제대로 상환능력이 평가된다면 거기에 맞는 금리라든지, 거기에 맞는 대출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금리가 높게 되는 상황이 있고 제대로 대출 못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

- (위원) 그래도 중금리대출을 한다면 저금리를 중금리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닌지? 결국은 고금리를 이용하던 사람이 중금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임. 기존에 고금리를 이용한 사람이 중금리로 이동을 하면 고금리 대출을 하던 사람들이 더 고금리 쪽을 끌어당기게 되고, 우리가 20% 넘는 것을 중금리로 끌어들이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현장분위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만약 현재 그런 것이 없으면 대부업체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대부업 담당하는 부서와 상의를 해서, 현재 5월말이니까 7월1일이면 한 달 남은 것임.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중금리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20%넘는 사람들을 20%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 같은데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권별 금리수준에 이런 스펙트럼(spectrum)이 있음.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이 극히 신용도가 낮은 층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큼. 그러다보니까 잠재적으로 타겟팅(targeting)하는 고객들은 일부 상호금융,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중에서 약간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임. 어떻게 보면 은행과 대부업자의 중간에서 상대적으로 은행쪽에 어느 정도 가까운, 아깝게 컷오프(cutoff)에 걸려서 은행에서 안 되는 고객들을 주로 포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그랬을 때 그쪽 업권에서 대출고객이 단계적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음. 그런 영향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그러니까 고객을 뺏는 것을 떠나서 의도적으로 중금리대출을 늘리겠다고 하면 새로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권유하여 흡수할 것임. 그렇게 되어 카드론, 상호금융 등에서 이동하면 그 부분들이 이제 영업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을 끌어들이면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되면 우리가 중금리대출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됨. 은행, 상호금융, 대부업계를 연쇄적으로 보셔서 중금리대출을 하는 것과 7월1일에 최고금리 인하하는 것으로 인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자금이동 상황을 봐주시기 바람. 그것을 다시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자료도 공유해서 만약 양쪽이 전혀 없이 절벽 상태로 두 개가 별개로 간다면 아까 금융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금융으로 가서 포섭하는 것을 알 수 있

게 우리가 7월1일부터 시행하니까 6월20일 정도에는 어떤 움직임이 될 것 같다는 것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보고자) 알겠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10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03분 폐회)